

CoMPAS 25

LG아트센터 서울 25년 기획공연 시즌 2025.4.5-11.16

25주년을
맞이한
LG아트센터

25th
ANNIVERSARY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레전드는 반드시
LG아트센터 무대로

'Nelken' by Pina Bausch, Naomi Brito ©Uwe Stratmann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
2025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5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2025.4.5 - 11.16



티저 영상

김선욱 &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Sunwook Kim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4.5 Sat
LG SIGNATURE Hall
VIP 160,000 R 120,000 S 80,000 A 50,000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4.7 Mon - 9 Wed & 4.11 Fri - 13 Sun
U+ Stage
All seats 60,000

연극 '헤다 가블러'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5.7 Wed - 6.8 Sun
LG SIGNATURE Hall
R 110,000 S 80,000 A 60,000 B 40,000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
Klaus Mäkelä,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and Yunchan Lim
6.13 Fri
LG SIGNATURE Hall
VIP 450,000 R 350,000 S 250,000 A 180,000 B 120,000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6.18 Wed - 29 Sun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150,000 R 130,000 S 100,000 A 60,000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7.4 Fri - 6 Sun
LG SIGNATURE Hall
VIP 280,000 R 230,000 S 180,000 A 120,000 B 80,000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10.16 Thu - 26 Sun
U+ Stage
All seats 60,000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부퍼탈 탄츠테아터
'Nelken' by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 Terrain Boris Charmatz
11.6 Thu - 9 Sun
LG SIGNATURE Hall
VIP 150,000 R 130,000 S 90,000 A 60,000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Hammer' by Alexander Ekman,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11.14 Fri - 16 Sun
LG SIGNATURE Hall
VIP 13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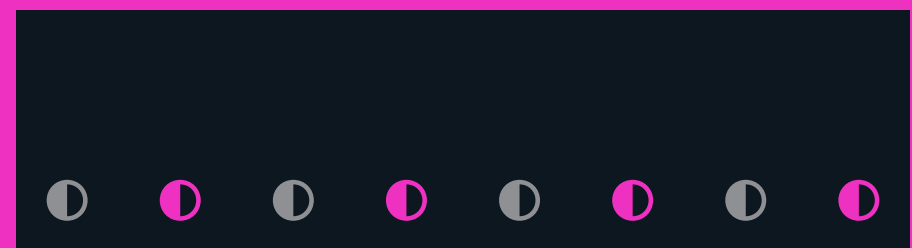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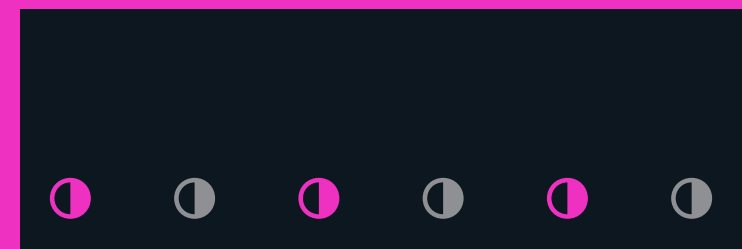
LG ARTS CENTER
SEOUL

25th
ANNIVERSARY

25

25th
ANNIVERSARY

LG
ARTS
CENTER



LG아트센터 서울의 2025년 기획공연은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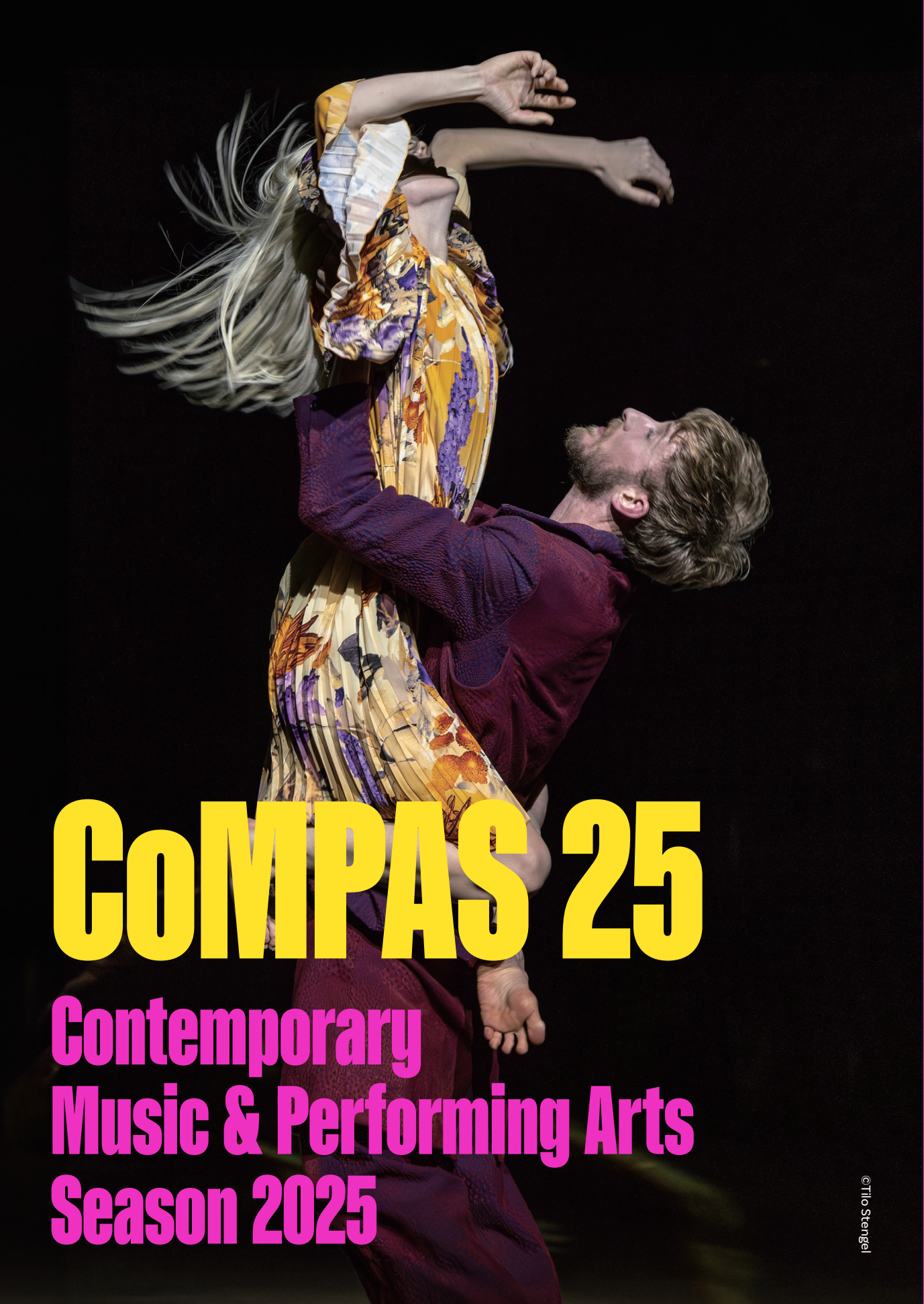
LG Arts Center SEOUL is a nonprofit performing arts venue established by the global group LG, dedicated to enriching society through the creation and exchange of culture and arts. Since opening in 2000, LG Arts Center has presented world-class contemporary performances, inspiring both artists and audiences. In 2022, LG Arts Center relocated to its new home in the Magok area under the name LG Arts Center SEOUL, offering a refreshed space amidst nature for an expanded artistic experience. LG Arts Center SEOUL will continue to be a welcoming space where creative minds and passionate audiences come together to connect, share, and be inspired.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마곡지구에서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COMPAS 25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Tilo Stengel

Part.1

레전드는 반드시 LG아트센터 무대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6.18 Wed - 29 Sun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7.4 Fri - 6 Sun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부퍼탈 탄츠테아터

'Nelken' by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
Terrain Boris Charmatz

11.6 Thu - 9 Sun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Hammer' by Alexander Ekman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11.14 Fri - 16 Sun

LG SIGNATURE 와 함께하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6.18 Wed - 29 Sun
Tue-Fri 7:30pm / Weekends 2pm & 7pm
* 6.19 Thu & 6.25 Wed 2:30pm & 7:30pm
* 6.29 Sun 2pm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150,000 R 130,000
S 100,000 A 6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8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2시간 30분 (휴식 1회 포함)

* 1막 70분, 휴식 20분, 2막 60분

Age Guidance | 8+ (born in 2018 or earlier)

Duration | 2h 30min with one interval

* Act 1-70 min, interval 20 min, Act 2-60 min

* 일부 회차는 전관 행사로 판매 마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매튜 본은 매튜 본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The Times)’, ‘올리비에상 역대 최다 수상자’

그의 수식어는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를 직접 보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레전드가 되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Johan Persson

1995년, 전설이 시작되다

1995년 11월, 영국 새들러스 웰스 극장. 로열 발레의 대표 스타, 아담 쿠퍼(Adam Cooper)가 ‘백조’로 분했다. 깃털 바지를 입은 근육질 남성 무용수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무대는 남성 백조들로 가득 찼다. 고전 발레에서 백조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고 믿던 관객들에게 남성 백조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일부 관객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압도적인 클라이맥스가 끝나자 극장은 환호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영국 무용계의 이단아가 세계 무용계에 혁신을 일으킬 것임을 예고한 순간이었다. 매튜 본의 전설적인 작품, ‘백조의 호수’ 30년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백조의 호수’ 30주년 기념 공연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리빙 레전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가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무대 위로 날아오른다.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백조 대신 근육질의 남자 백조를 등장시키며 전 세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백조의 호수’는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통렬한 무용 공연이자 세계 무용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은 걸작이다.

‘백조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 ‘올리비에상 역대 최다 수상자’라는 수많은 수식어와 함께 매튜 본을 위대한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의 탁월한 재능이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올리비에상 최우수 무용 공연상 및 토니상을 비롯해 30여 개가 넘는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며, 초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LG아트센터에서 처음 관객들을 만났고, 2005년, 2007년, 2010년, 2019년 재공연을 올리며 약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내한하는 이번 공연은 젊고 에너지 넘치는 차세대 무용수들과 함께 긴 역사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한 ‘백조’를 선보인다.

과거의 ‘백조’를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그때의 감동을, 아직 ‘백조’를 경험하지 못한 관객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할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이제 다시 전설을 만날 시간이다.

Experience the legendary ‘Swan Lake’ as it marks its 30th anniversary. Matthew Bourne’s groundbreaking reinterpretation, featuring muscular male dancers as swans—challenging societal norms that traditionally defined swans as delicate female dancers—has remained a revolutionary piece since its 1995 premiere, starring Adam Cooper. As Bourne’s most iconic work, Swan Lake has won over 30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the Olivier and Tony Awards, and continues to captivate audiences worldwide.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e iconic ‘Swan Lake’ returns to LG Arts Center SEOUL after six years, showcasing the energy and sophistication of its three-decade legacy. The refined and powerful presence brought to life by a new generation of vibrant dancers will deliver an experience unlike anything seen before. For those who remember its magic or are discovering it for the first time, don’t miss this chance to witness a living legend take flight once more.

“‘백조의 호수’와 LG아트센터는 2003년 첫 한국 공연 이후, 22년 동안 함께 성장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25주년을 맞이한 LG아트센터 무대에서
새로운 세대의 젊은 무용수들과 이 위대한 작품을
다시 한번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매튜 본

Matthew Bourne’s ‘Swan Lake’



©Johan Persson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Bill Cooper ROH

7.4 Fri - 6 Sun

Fri 7:30 pm / Weekend 1pm & 6pm

LG SIGNATURE Hall

VIP 280,000 R 230,000 S 180,000 A 120,000 B 8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8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2시간 30분 (휴식 1회 포함)

Age Guidance | 8+ (born in 2018 or earlier)

Duration | 2h 30min with one interval

* 일부 회차는 전관 행사로 판매 마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 속 어린 빌리가 간절히 꿈꾸던 곳,
영국의 문화 아이콘 '로열 발레'가 20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영국 밖에서, 일 년에 단 두 곳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
2025년, LG아트센터 서울 관객만이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된다.



상처 입은 도시를 재건한 영국 예술의 자존심

2차 세계대전 동안 런던은 폐허와 같았다. 연이은 폭격으로 주요 극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공연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로열 발레의 전신인 ‘새들러스 웰스 발레’는 전쟁 중에도 영국과 유럽의 소규모 극장과 임시 무대를 순회하며 적극적으로 공연을 이어 나갔다.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으로 지친 대중에게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1946년, 로열 오페라 하우스 재개관 공연으로 펼쳐진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도시에 전하는 위로이자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이로 인해 로열 발레는 단순한 무용 단체를 넘어 국가와 시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 재건의 상징’이 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Royal)’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수많은 명작과 스타들을 탄생시킨 ‘꿈의 발레단’

로열 발레는 이후 세계적인 안무가들과 함께하며 역사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프레더릭 애슈턴의 ‘신데렐라’, ‘한여름 밤의 꿈’, 케네스 맥밀런의 ‘로미오와 줄리엣’, ‘마농’ 등 20세기의 고전들로 평가받는 작품들의 초연 무대가 대표적이다. 로열 발레는 1960년대 ‘발레 역사상 최고의 콤비’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러시아 출신의 천재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가 자유를 찾아 서유럽으로 망명을 했던 덕분이었다. 누레예프는 로열 발레에 입단하여 마고 폰테인과 20년 넘게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발레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도 등장한 ‘로열 발레 스쿨(The Royal Ballet School)’을 통해 차세대 스타들을 양성하며, 전 세계 수많은 발레 유망주가 입단을 고대하는 ‘꿈의 발레단’이 되었다.



출연 및 프로그램

클래식부터 컨템포러리까지

로열 발레의 대표작으로 구성된 20년 만의 내한

명실상부 세계 정상의 발레단, 로열 발레가 7월 ‘더 퍼스트 갈라’를 통해 20년 만에 내한한다. 영국 내 공연 일정으로 해외 투어는 1년에 1~2개 도시만 진행하는 로열 발레의 무대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이다. 로열 발레의 대표작 10여 편으로 구성된 이번 갈라 공연에서는 ‘지젤’, ‘해적’ 등 19세기에 초연된 클래식 발레의 대표적인 작품들부터, 로열 발레의 전성기를 이끈 케네스 맥밀런과 프레더릭 애슈턴이 안무한 20세기의 고전들, 웨인 맥그리거, 크리스토퍼 힐든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안무가들의 컨템포러리 작품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세계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직접 만날 기회

로열 발레의 정식 단원은 120여 명이며,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단원들에게 ‘프린시펄’부터 ‘퍼스트 솔로리스트’, ‘솔로리스트’, ‘퍼스트 아티스트’, ‘아티스트’ 등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로열 발레의 최고 등급이자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무용수, ‘프린시펄’들의 움직임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2008년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이자 21세기 가장 유명한 발레리나 중 한 명인 나탈리아 오시포바, 로열 발레의 대표 발레리노 바딤 문타기로프를 포함하여, 프란체스카 헤이워드, 마르셀리노 삼베, 후미 가네코 등 9명의 수석 무용수들이 내한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로열 발레 스쿨’에 입학하고, 발레단 입단 7년 만에 차상위 등급인 ‘퍼스트 솔리스트’로 승격하며 주목받고 있는 전준혁을 비롯하여, 최윤희, 김보민, 박한나 등 한국인 무용수들의 반가운 모습도 만날 수 있다.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2023 Tristram Kenton

Finally after 20 years, The Royal Ballet—the pride of British ballet and a symbol of global excellence—returns to Korea with a specially curated gala performance. Renowned for its unparalleled history of classic tradition with modern innovation, The Royal Ballet stands among the world’s most prestigious ballet companies.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will feature a stellar lineup of The Royal Ballet’s principal dancers including Natalia Osipova, Vadim Muntagirov, Cesar Corrales, Francesca Hayward, Ryoichi Hirano, Fumi Kaneko, Calvin Richardson, Marcelino Sambé and Akane Takada. Joining them are the talented Korean dancers including the first soloist Jeon Joon Hyuk, who continue to make their mark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is exclusive performance features carefully selected pieces, presenting the company’s vast repertoire, from timeless 19th-century classics including ‘Giselle’ and ‘Le Corsaire’, to iconic 20th-century works by Kenneth MacMillan and Frederick Ashton, as well as groundbreaking contemporary pieces by Wayne McGregor and Christopher Wheeldon. Experience the elegance and power of The Royal Ballet live on stage, a performance not to be missed.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부퍼탈 탄츠테아터

'Nelken' by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
Terrain Boris Charmatz

11.6 Thu - 9 Sun
Thu-Fri 7:30pm / Sat 5pm / Sun 3pm
LG SIGNATURE Hall
VIP 150,000 R 130,000 S 90,000 A 60,000

관람연령 | 14세 이상 (2012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1시간 50분 (휴식 없음)
Age Guidance | 14+ (born in 2012 or earlier)
Duration | 1h 50min with no interval

* 본 공연에는 실제 동물이 출연합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거장의 작품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현대예술사의 절대적인 이름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이 돌아온다.

2000년 LG아트센터의 역삼 시대를 열고, 마곡에서의 25주년을 기념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유산,

이번 내한이 어찌면 '카네이션'을 만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감히 예상해 본다.

Alexander López Guerra, Andrey Berezin,
Luciény Kaabral © Oliver Look

우리 시대 가장 독보적인 예술가, 피나 바우쉬
2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녀의 위대한 유산 ‘카네이션’

수천 송이 카네이션이 끝없이 펼쳐진 무대, 하이힐을 신고 반도네온을 맨 채 유유히 걷는 여자, 그리고 셰퍼드 네 마리.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피나 바우쉬의 세계로 들어선다. 형식과 한계를 뛰어넘은 장르인 ‘탄츠 테아터(Tanztheater)’로 세계무용계의 판도를 바꾼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 피나 바우쉬. 25년 전인 2000년, LG아트센터의 개관을 알리며 국내 공연예술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녀의 대표작 ‘카네이션’이 2025년, LG아트센터의 25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카네이션’은 인간과 소통에 집중하는 피나 바우쉬의 예술 철학과 자연을 그대로 옮겨오는 무대, 인생을 담아내는 메시지 등 그녀 특유의 작품 스타일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초기 대표작이다. 1980년 여름, 남아메리카 투어 중 칠레 안데스산맥에서 마주한 카네이션 들판을 그대로 그려낸 황홀한 미장센은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2009년 타계 전까지 피나 바우쉬가 이끌었던 부퍼탈 탄츠테아터는 여전히 전 세계 공연장에서 그녀의 예술 세계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녀의 레거시를 이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 무용수들의 에너지까지 더해져 그녀의 유산과 부퍼탈 탄츠테아터의 새로운 미래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카네이션’ 들판. 우리는 반드시 이 위대한 유산을 마주해야 한다.

Ensemble ©Uwe Straumann



‘Nelken’ by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 Terrain Boris Charmatz

LG아트센터와 피나 바우쉬, 25년의 동행

피나 바우쉬와 부퍼탈 탄츠테아터가 처음 한국 관객들을 만난 건 1979년 ‘봄의 제전’이었지만, 한국과의 깊은 인연이 시작된 작품은 ‘카네이션’이었다. LG아트센터 개관작인 ‘카네이션’은 피나 바우쉬가 직접 추천했는데, 이 작품이 탄츠테아터의 정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롭게 문을 연 공연장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 이후, 25년 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8편의 피나 바우쉬 작품은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특히, LG아트센터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의 작품이 함께했다. LG아트센터 5주년 기념작이자, 한국을 소재로 제작한 국가도시 시리즈 ‘러프 컷’, 10주년 기념작인 ‘카페 뮐러’, ‘봄의 제전’ 등이 그러했다. 2009년 피나 바우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카페 뮐러’ 무대에 선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두 작품은 영원히 그녀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남겨졌다.

LG아트센터가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25주년을 맞이한다. 만약 피나 바우쉬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었다면, 25주년을 장식할 공연으로 어떤 작품을 추천했을까? 아마 그녀 역시, ‘카네이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 2000.4 ‘카네이션 Nelken’
- 2003.4 ‘마주르카 포고 Masurca Fogo’
- 2005.6 ‘러프 컷 Rough Cut’ (LG아트센터 공동제작)
- 2008.3 ‘네페스 Nefés’
- 2010.3 ‘카페 뮐러/봄의 제전 Café Müller/Le Sacre du Printemps’
- 2014.3 ‘풀 문 Full Moon’
- 2017.3 ‘스위트 맘보 Sweet Mambo’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피나 바우쉬

The timeless masterpiece ‘Nelken(Carnations)’ by Pina Bausch, one of the greatest artists of our time, returns to Korea for LG Arts Center’s 25th anniversary. Pioneering the groundbreaking genre of Tanztheater, Bausch transcended traditional boundaries and limitations with powerful narratives that continue to resonate to this day.

Over the years, Bausch and LG Arts Center have built a deep connection, exclusively introducing eight of her works to Korean audiences, including ‘Rough Cut’, ‘Café Müller’, and ‘Le Sacre du Printemps’. Now, as LG Arts Center marks its 25th anniversary, ‘Nelken’ returns to the stage, offering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Bausch’s profound vision once more. As one of Pina

Bausch’s early masterpieces, ‘Nelken’ embodies her unique artistic philosophy of human connection, by bringing nature on stage, as well as her profound messages on life. Featuring the energy of the new generation of dancers, this performance will offer a rare chance to witness the evolution of Tanztheater Wuppertal and Bausch’s legacy.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Hammer' by Alexander Ekman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Artistic Director Katrin Hall

11.14 Fri - 16 Sun

Fri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VIP 13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관람연령 | 14세 이상 (2012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2시간 10분 (휴식 1회 포함)

* 1막 45분, 휴식 40분, 2막 45분

Age Guidance | 14+ (born in 2012 or earlier)

Duration | 2h 10min with one interval

* Act 1-45 min, interval 40 min, Act 2-45 min

예측할 수 없고, 대담하고, 혁신적인.
현대무용을 사랑하는 이들이 늘 목말라
하는 수식어를 집어삼킨 이들이 온다.
충격적인 스펙트럼을 선보이는
천재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과
유럽 현대무용의 새로운 판도를 그리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의 합작.
서로를 '최고의 파트너'로 칭하는 이들의
작당 모의에 제대로 한 번 당해볼 시간이다.



단순한 춤이 아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하나의 브랜드, 알렉산더 에크만

5,000L의 물 위에서 펼쳐지는 ‘백조의 호수(파리 오페라 발레)’, 수천 개의 녹색 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플레이(파리 오페라 발레)’. 알렉산더 에크만은 늘 새로운 ‘비주얼 쇼크’를 선물했다.

이미 20대에 ‘천재 안무가’ 칭호를 얻은 에크만은 이제 단순 안무가를 넘어, 한 편의 스타일을 선보이는 아이콘이 되었다. 대담한 비주얼과 형식을 파괴하는 접근, 무대와 기술을 결합한 실험적인 시도. 그의 작품들은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에 충분했다.

그중 ‘해머’는 에크만 안무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최신작이다. 30여 명의 무용수가 압도적인 군무를 펼쳐내고, 웅장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링은 시각 효과를 절정으로 이끈다. 여기에 에크만과 기념비적인 작품을 함께해 온 미칼렌 칼슨의 음악이 더해지고, 힙스터 같은 댄서들은 예측불가한 퍼포먼스로 무대 너머 객석까지 뒤흔든다.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하는 스웨그가 흘러넘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의 작품에는 유머의 탈을 쓰고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해머’는 에크만이 방문했던 그리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출발했다. 그곳에는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젊은 관광객 무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자리의 분위기는 오묘하게 바뀌었다. 모두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오히려 카메라만 신경 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때 에크만은 현시대에 “진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렸다.

전통과 혁신,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장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알렉산더 에크만. 그의 작품은 더 이상 무용이 아니다. 현대무용의 미래를 선도하는 하나의 ‘브랜드’, 그 자체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Hammer’ by Alexander Ekman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그리고 2023년, 그들의 첫 내한 무대는 역시 LG아트센터 서울이었다. 디올 패션쇼와 에어팟 광고의 안무로도 잘 알려져 있는 두 거장, 샤론 에알과 다미안 잘레의 신작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매 순간 폭발적인 움직임과 환상적인 미장센으로 객석을 압도했다.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에 멈추지 않고 “LG아트센터가 표방하는 컨템포러리 프로그램의 진수”라는 찬사를 남겼다.

라 빌레프, 새들러즈 웰스, 토리노단자 페스티벌 등 세계의 권위 있는 극장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현대무용의 새로운 판도를 그리고 있는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과연 이번에는 어떤 뉴웨이브로 우리를 진동시킬까. 공연의 안무가인 알렉산더 에크만은 “함께해 온 무용단 중 단연 최고”라는 강력한 힌트를 남겼다.

Step into the world of ‘Hammer’, Alexander Ekman’s bold masterpiece, brought to life by the renowned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Known for his daring visuals and unorthodox use of technology, Ekman has redefined contemporary dance with electrifying works such as ‘Swan Lake’ and ‘Play’.

In ‘Hammer’, over 30 dancers dominate the stage with mesmerizing group choreography, along with breathtaking lighting and styling. The performance is elevated with the music of Mikael Karlsson and the dancers’ unpredictable movements, creating a breathtaking experience for the audience. ‘Hammer’ is an exhilarating mix of humor and visceral questions on the authenticity of modern life, inviting everyone to explore the nature of reality.

Performed by the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Scandinavia’s largest dance company—‘Hammer’ offers an unforgettable sensory experience. Witness as Ekman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art and reality, transcending dance to emerge as a brand itself that leads the future of contemporary movement on stage.

“누구도 무감각하게 두지 않는다”
에테보리 포스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어떻게 유럽 현대무용 최전선에 깃발을 꽂았나

현대무용계의 전설적인 이름들 - 윌리엄 포사이드, 지리 킬리언, 호페쉬 쉼터, 요안 부르주아,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장이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를 거쳐갔다.

최첨단 작품을 선보이는 북유럽 최대의 댄스컴퍼니,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무려 20개국 출신의 무용수들과 함께 “흠잡을 데 없는 앙상블(Tans)”을 선보인다. 이들의 다채로운 문화적 자산과 독창적인 에너지는 스타와 신진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세계의 안무가들을 에테보리로 이끌었다.

136 Fragrance

Inspired by TUBE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튜브(TUBE)에서 영감을 받은 '향기 136'
LG아트센터 서울 '향기 136'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채워보세요.

Renewal

136 디퓨저

68,000원 / 250ml

Renewal

136 룸스프레이

57,000원 / 100ml

136 캔들

37,000원

본품 콘크리트 케이스 + 향초(40g)

12,900원

리필 향초(40g) × 2ea



제품 구매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2층 라코펠라 (운영시간 11:00-20:00 / 월요일 휴무)

온라인 구매 센틀리에 온라인몰 www.scentlier.com/136



LG Arts Center
×
Scent Berry Perfume House

Part.2

‘벚꽃동산’의 센세이션을 잇는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연극 ‘헤다 가블러’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5.7 Wed - 6.8 Sun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헤다 가블러’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녀를 만나다!
배우 이영애의 ‘헤다 가블러’

2024년, 30회의 공연 내내 1,300여 석의 대극장을 가득 채운 연극 ‘벚꽃동산’의 열기가 채 식지 않았는데, LG아트센터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제작 연극의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한다.

근대극의 일인자, 헨리크 입센의 고전 명작 ‘헤다 가블러’는 사회적 제약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심리를 급진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현대까지도 강렬한 비극의 아이 콘으로 꼽히는 ‘헤다’는 복잡하고, 아름답고, 파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입체적 인물로, 세계 어디서든 공연 소식이 전해지면 누가 ‘헤다’를 연기하는지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다.

그리고 2025년, 시대를 초월하는 배우 이영애가 완전히 새로운 ‘헤다 가블러’로 LG아트센터 서울 무대에 오른다. 오랜 시간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이영애는 32년 만에 연극 작품에 복귀하며 누구보다 다층적인 내면을 가진 캐릭터 ‘헤다’로 분한다. 숨을 죽이게 만드는 존재감, 섬세한 연기, 치밀한 해석까지. 이영애의 ‘헤다 가블러’는 “헤다는 누구인가”라는 기다림에 완벽한 회신을 보낸다.

또한 제54회 동아연극상 연출상의 주인공이자, ‘치밀한 텍스트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전인철이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아 현대적 감각으로 ‘헤다’를 깨운다. 그녀의 다층적인 내면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잡한 심리와 불안을 담아내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날카롭게 그려낼 예정이다.

시간을 거슬러 현재로 걸어 나온 ‘헤다’는 객석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서늘한 손을 내민다. 방심하는 순간, 소용돌이치는 그녀의 욕망과 좌절, 본능에 휩쓸려 갈 수 있으니 긴장을 놓치지 말자.

5.7 Wed - 6.8 Sun
Wed 3pm / Thu-Fri 7:30pm / Weekends 4pm
LG SIGNATURE Hall
R 11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관람연령 | 14세 이상 (2012년 출생자까지)
Age Guidance | 14+ (born in 2012 or earlier)

연출 | 전인철
출연 | 이영애 김정호 지현준 이승주 백지원 이정미 조어진

To celebrate its 25th anniversary, LG Arts Center presents ‘Hedda Gabler’, Henrik Ibsen’s timeless masterpiece, reimagined with a modern sensibility. A daring exploration of a woman’s struggle for freedom within societal constraints, ‘Hedda Gabler’ remains one of theatre’s most powerful tragedies, centered around a character both mesmerizing and destructive.

Directed by Jeon In-cheol, renowned for his meticulous textual analysis, this production sheds light on the complexities of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Hedda’s intricate psyche and the intense conflicts that surround her.

Most notably, the legendary Lee Young-ae returns to the stage after 32 years. With her commanding presence, delicate performance, and masterful character study, she is set to bring to life a richly layered Hedda.



©희문 스튜디오

역사를 새기는 열 손가락의 거침없는 질주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스트리밍으로 만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를 초고화질(4K UHD)과 선명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로 즐겨 보세요. 스튜디오 음질의 무손실 오디오 신호(Hi-Res 오디오)와 공간 음향(돌비 애트모스)의 입체적인 사운드 경험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스트리밍: 최신 TV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앱을 사용하시면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 언제 어디서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digitalconcerthall.com

Ch 카톡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Berlin Phil 채널 추가하세요 +



김선욱 &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Sunwook Kim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4.5 Sat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운찬)

**Klaus Mäkelä,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and Yunchan Lim**

6.13 Fri

김선욱 &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Sunwook Kim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베토벤 스페셜리스트가 선사하는
독보적인 시간

아티스트로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베토벤과 함께해 온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2012년과 2013년, 그는 국내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LG아트센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그리고 이제, 더 커진 무대에서 김선욱은 혼자자 아니다. “유럽의 본질을 대표(안드라스 시프 경)”하는 동시에, BBC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내악단”인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협연도 하면서 베토벤과 김선욱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로, 이후 약 20년간 피아니스트로 세계 주요 무대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김선욱은 이미 3년 전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자신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작품이자,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유일하게 단조의 매력을 보여주는 ‘3번’, 피아노 독주로 시작하는 혁신적인 시도와 함께 서정적인 아름다움까지 만날 수 있는 ‘4번’, ‘황제’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피아노 협주곡의 정점을 보여주는 ‘5번’까지 순서대로 연주하며 김선욱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해석을 온전히 보여줄 예정이다.

김선욱의 지휘에 울림을 더해 줄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창단 초기 멘토 역할을 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아르농쿠르와 하이팅크에 이어 사이먼 래틀, 안드라스 시프 등 거장들이 명예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굴지의 오케스트라다. 예술감독이나 상임 지휘자 없이 유럽 각국의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과 유명 실내악 연주자들이 모여 유연한 앙상블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래미상 2회, 그라모폰 올해의 음반상 3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4.5 Sat 5pm
LG SIGNATURE Hall
VIP 160,000 R 120,000 S 80,000 A 5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8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2시간 (휴식 1회 포함)
Age Guidance | 8+ (born in 2018 or earlier)
Duration | 2h with one interval

“베토벤이 던진 모든 것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바흐트랙)”고 평가받는 김선욱과 진정성 있는 정통 유럽 사운드로 연주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들의 무대는 200여 년 전 베토벤이 선보인 혁신의 깊이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JuliaWesely



©Marco Borggreve

프로그램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다단조, Op. 37
피아노 협주곡 4번 사장조, Op. 58
피아노 협주곡 5번 내림마장조, Op. 73 ‘황제’

Program |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 58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Op. 73 'Emperor'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 피아노 김선욱 Sunwook Kim
연주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Chamber Orchestra of Europe

Sunwook Kim, the youngest winner in the 40-year history of Leeds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and now a celebrated conductor, reunites with the world-renowned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fter an anticipated reunion after three years.

After his encounter with the thrilled audiences as a soloist in their previous collaboration, in season 2024/25, Kim will conduct and perform all five of Beethoven’s piano concertos, presenting his passionate interpretation and musical mastery. The program at LG Arts Center highlights the unique intensity of ‘Piano Concerto No. 3’, the innovation and lyrical beauty of ‘Piano Concerto No. 4’, and the majestic grandeur of Beethoven through ‘Piano Concerto No. 5’, also known as the ‘Emperor.’

Praised by the BBC as “the finest chamber orchestra in the world”,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carries forward the legacy of its early mentor Claudio Abbado. Known for its ensemble of great authenticity and depth, the orchestra has earned numerous accolades including two Grammy Awards and three Gramophone “Record of the Year” awards.

This collaboration between Kim and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promise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blending the depth of Beethoven’s composition and the orchestra’s refined artistry.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timeless brilliance of Beethoven’s revolutionary music.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

Klaus Mäkelä,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and Yunchan Lim

역사를 현재로 만드는 메켈레의 마법

6월, 모든 클래식 음악 팬들을 설레게, 아니 긴장시키는 이들이 온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악단인 파리 오케스트라와 바렌보임, 에센바흐, 파보 예르비, 다니엘 하딩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서울을 찾는 오케스트라의 수장, 29세의 젊은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다. 그는 다수의 명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연달아 지명되며 지금 클래식 음악계의 가장 핫한 지휘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슬로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와 파리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겸하고 있는 클라우스 메켈레는 젊은 리더십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클래식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로열 콘서트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게 되어 동시대 지휘자 중 유례없는 커리어를 기록하게 됐다.

메켈레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는 1967년 창단 이후 카라얀, 슬티 경, 바렌보임, 파보 예르비 등 수많은 거장이 거쳐 갔으며, 프랑스 레퍼토리에 대한 독보적인 연주로 프랑스 음악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다. 이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과 라벨이 편곡한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원래 피아노를 위해 쓰인 곡이 관현악 편성으로 편곡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벨이 담아내고자 했던 색채감과 웅장함은 메켈레의 섬세한 해석을 통해 한층 더 깊이를 쌓을 예정이다.

©Shin-Joong Kim / MOC

한계를 모르는 뉴 스탠다드, 임윤찬의 협연

9년 만에 내한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이번 공연에는 “백만분의 일의 재능(댈러스 모닝 뉴스)”을 지닌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 한다. 18세의 나이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은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그라모폰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디아파종 황금상 ‘올해의 젊은 음악가’ 부문까지 거머쥐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가 연주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은 비교적 드물게 연주되지만, 실험적인 작곡 기법이 과감히 시도되고 재즈적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일 때마다 자신만의 해석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임윤찬이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를 모은다.

가능성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매 순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두 명의 아티스트와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번 무대는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경이로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6.13 Fri 7:30pm
LG SIGNATURE Hall
VIP 450,000 R 350,000 S 250,000 A 180,000 B 12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8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1시간 40분 (휴식 1회 포함)
Age Guidance | 8+ (born in 2018 or earlier)
Duration | 1h 40min with one interval

* 본 공연은 CoMPAS 25 패키지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Marco Borggreve

프로그램 |
라벨, 쿠프랭의 무덤, M. 68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 사단조, Op. 40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편곡: 라벨)

Program |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M. 68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Op. 40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arranged by Ravel)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클라우스 메켈레 Klaus Mäkelä
협연 임윤찬 Yunchan Lim
연주 파리 오케스트라-필하모니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William Beaucardet

Witness the brilliance of Klaus Mäkelä, one of today’s most celebrated young conductors, as he leads France’s premier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at LG Arts Center SEOUL.

Currently chief conductor of the Oslo Philharmonic and music director of the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Mäkelä has earned widespread acclaim for his leadership and sharp insight, marking an unparalleled history among his generation of conductors. The orchestra, found in 1967 and shaped by legendary maestros such as Herbert von Karajan and Sir Georg Solti, will bring new depth to Ravel’s music with by Mäkelä’s refined interpretation.

Joining them is pianist Yunchan Lim, the one-in-a-million talent, who continues to stun the classical world as the youngest winner of the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Lim will perform Rachmaninoff’s Piano Concerto No. 4, a rare yet bold work promising to captivate the audience with its innovative spirit.

Don’t miss this extraordinary collaboration between two soaring stars of classical music and one of the world’s finest orchestras.

INTELLIGENTLY CONNECT

인공지능에서 연결지능으로

단순히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X로 고객의 일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유플러스는
사람과 기술을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당신에게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합니다

소통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부터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유플러스만의 AX 혁신은 계속됩니다

GROWTH LEADING
AX COMPANY

 LGU+

ixi O

ixi-GEN

Part.4

박 잡아! 멈출 줄 모르는 히트메이커들의 신작 릴레이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4.7 Mon - 9 Wed & 4.11 Fri - 13 Sun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10.16 Thu - 26 Sun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판소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고유명사 이자람

우리 시대 판소리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이자람의 등장일 것이다. 그녀가 ‘사천가’, ‘억척가’,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 등으로 개척해 온 새로운 길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관객에게 기립 박수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그녀의 행보는 ‘억척가’를 초연했던 LG아트센터의 무대에서 5년 만에 발표하는 신작 ‘눈, 눈, 눈’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에 충분하다.

이자람 신작 ‘눈, 눈, 눈’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주인과 하인’을 재창작한 작품이다. 원작은 180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마을 상인 바실리와 하인 니키타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바실리는 숲을 매입하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시대의 정신이 황폐해짐을 느낀 2020년대 초반, 이자람은 본 작품을 접하고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본능과 인간애가 교차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갈등과 분열된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떠올렸다. ‘눈, 눈, 눈’은 이자람의 전작들과 같이 소리꾼과 고수만 등장하며, 전통 판소리의 형식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진행된다.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에서 드라마투르기와 연출을 맡았던 양손프로젝트의 박지혜 연출가가 본 작품에도 함께하며, 무대와 조명 디자인은 극적인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출중한 여신동이 맡아 전통적인 ‘빈 무대’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LG아트센터에서 3년 연속 ‘억척가’를 공연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2022년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페스티벌 ‘노인과 바다’를 통해 한층 더 깊은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했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녀는 뮤지컬 서편제의 ‘송화’ 역으로, 인디밴드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리더 겸 보컬로, 수필집 「오늘도 자람」을 발간한 작가로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산하며 우리에게 감탄과 감동을 안

4.7 Mon - 9 Wed & 4.11 Fri - 13 Sun
Weekdays 7:30pm / Weekend 4pm
U+ Stage
All seats 60,000

관람연령 | 12세 이상 (2014년 출생자까지)
Age Guidance | 12+ (born in 2014 or earlier)

* 본 공연은 신작으로,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됩니다.

겨 왔다. 이자람이 5년 만에 발표하는 신작 ‘눈, 눈, 눈’을 통해 시대를 성찰하는 작가이자 탁월한 소리꾼, 다재다능한 배우이기도 한 이자람의 진면목을 확인해 보자.

Lee Jaram, a groundbreaking pioneer of contemporary pansori, returns to LG Arts Center SEOUL with her new work ‘Snow, Snow, Snow’ after five years. Known for her unique creations such as ‘Sacheon-ga’, and ‘The Old Man and the Sea’, Lee has redefined the art of pansori with innovating narratives, captivating audiences around the world.

Inspired by Tolstoy’s ‘Master and Man’, Lee’s ‘Snow, Snow, Snow’ reimagines the story of a merchant and his servant lost in a snowstorm, leading to a confrontation with their inner selves. The performance follows the traditional pansori format, with director Park Ji-hye and stage and lighting designer Yeo Shindong. Together, they will enrich the narrative with light and color.

With Lee’s versatile talents as a singer, actor, and writer, her newest work ‘Snow, Snow, Snow’ offers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ull depth of her artistry, striking a timeless reflection on the theme of humanity and coexistence in a world full of division and conflict.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본질로 직진하는 ‘양손’이라는 무대 언어

‘벚꽃동산’에서 베토벤을 허밍으로 연주하던 송재영(손상규), ‘노인과 바다’의 미니멀하고 선명한 연출(박지혜), 4시간 가까이 홀로 ‘데미안’을 읽어 내려가던 배우(양종욱), ‘죽음과 소녀’에서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빠울리나(양조아)... 무대 위에서 유독 눈길을 사로잡던 이들은 모두 ‘양손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모인다.

양손프로젝트(이하 “양손”)는 연출 박지혜, 배우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으로 구성된 공동 창작집단이다. 오롯이 네 명이서 극작, 연출, 연기를 모두 소화하며 새로운 연극 문법을 구축해 낸다. 등장인물의 수, 장면의 순서, 원작의 시점 등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양손은 독특한 연극 언어로 관객의 호흡마저 조절하는 밀도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양손의 ‘한 개의 사람’은 헝가리 국립극장에 초청받았고, ‘여직공’으로 영국 6개 극장을 투어하며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 관객들에게도 그들의 작품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10.16 Thu - 26 Sun
Tue-Fri 7:30pm / Weekends 3pm
U+ Stage
All seats 60,000

관람연령 | 14세 이상 (2012년 출생자까지)
Age Guidance | 14+ (born in 2012 or earlier)

* 본 공연은 신작으로, 상세 정보는 추후 공개됩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양손프로젝트 ‘유령’으로 입센 3부작의 서막을 열다

각자의 행보를 걷던 양손의 모든 멤버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아티스트 개인으로서도 활약 중인 양손은 함께 작품에 임할 때도 1인극 또는 2인극 형태를 자주 취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아주 귀하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데 특출난 만큼 양손이 선택한 텍스트는 언제나 그 관심의 중심에 있다. 그들이 선택한 헨리크 입센이 기대되는 이유다. 양손은 LG아트센터 서울 무대의 ‘유령’을 시작으로 입센의 작품 3편을 매년 한 편씩 제작, 입센 3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손이 그려갈 입센의 대장정에 동행하려면, 이번 작품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Yangson Project, an innovative collaborative group known for their unique theatrical language and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stage, returns with an ambitious adaptation of Henrik Ibsen’s Ibsen Trilogy. Composed of director Park Ji-hye and actors Son Sang-gyu, Yang Jo-a, and Yang Jong-uk, the Yangson Project has created productions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writer, performer, and the stage itself, earning acclaim in Korea’s major theatres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their upcoming production, ‘Ghosts(working title)’ members of the Yangson Project will make a full appearance, attempting a bold reinterpretation on the work of the one and only Ibsen with their unique lens. The three-part series, starting with ‘Ghosts(working title)’ in 2025, promises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unparalleled, unique energy of the Yangson Project with Ibsen’s timeless themes of morality and identity.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Tilo Stengel

CoMPAS 25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5

CoMPAS 25

예매 가이드

패키지 예매기간

Package Booking Period

1.21 Tue 11am - 2.28 Fri

개별 공연 예매기간

Performance Booking Period

2.4 Tue 11am -

*개별 티켓 별도 오픈 (추후 공지)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

연극 '헤다 가블러'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패키지

패키지 예매기간

1.21(화) 11am - 2.28(금)

패키지 유의사항

[공연 관련]

- ✓ ‘클라우스 메켈레 & 파리 오케스트라 (piano 임윤찬)’는 패키지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 ✓ 연극 ‘헤다 가블러’,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의 좌석 지정은 추후 개별 티켓 오픈 전 ‘패키지 예매자 선예매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연극 ‘헤다 가블러’는 1차 티켓 오픈 회차에 한하여 지정 가능합니다.
-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은 패키지에 공연별 선착순 700석만 선택 가능합니다.

[구성 및 예매 관련]

- ✓ 공연별 잔여석 여부에 따라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예매 후 바로 좌석 지정을 권장합니다. 해당 공연의 등급 및 수량 매진 시 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 ✓ 공연별 관람 연령(8세/12세/14세 이상)이 다릅니다.
예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연별 동일 좌석 등급으로만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U+ 스테이지 공연의 경우, 전석 동일 등급으로 패키지에서 하나의 좌석 등급이 선택됩니다.
 - R석 자유 패키지의 경우, 일부 공연을 VIP, LG SIGNATURE 석으로 상향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B석은 패키지에서 제외됩니다.
- ✓ 예매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회차 변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패키지 예매 시 아트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불가합니다.
- ✓ 2.4(화) 10~11am에는 개별 공연 티켓 오픈 준비 작업으로 패키지 예매가 일시 중단됩니다.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무료 사용권

CoMPAS 25 패키지 구매자 선착순 2,000명에게 베를린 필하모닉 (Berliner Philharmoniker)의 연주실황 및 800개 이상의 콘서트 영상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서트홀(Digital Concert Hall) 30일 무료 사용권을 제공합니다.

* 패키지 구매 회원의 이메일로 무료 사용권 코드와 사용방법이 전송됩니다.
(2025년 3월 예정)



PACKAGES

Package Booking Period

1.21 Tue 11am -

2.28 Fri

Notes on the Package booking

- ✓ The package is available for purchase via E-mail(lgarts@lgart.com) inquiries.
- ✓ The performance of ‘Klaus Mäkelä, Orchestre de Paris – Philharmonie and Yunchan Lim’ is excluded from the package options.
- ✓ The seat selection for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and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will be available during the ‘Early Booking Period for package’ before the performance ticket sales open. The schedule will be announced later.
 - For ‘Hedda Gabler’, seat selection will only be available for performances included in the first ticket sales phase.
- ✓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and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are limited to 700 seats per performance within the package.
- ✓ Packages may sell out early depending on seat availability for each performance.
- ✓ We recommend selecting seats for the included performances immediately after purchasing the package. Please note that if seats in your selected grade are sold out, seat selection will not be available.
- ✓ Please be sure to check the age guidance(8+/12+/14+) for each show before purchase, as it varies by performance.
- ✓ For the packaged shows, you must select the same seat grade for all shows. Selecting more than one seat for the same show is not permitted.
 - For U+ Stage performances, all seats are of the same grade, and a single seat grade is selected from the package.
 - As for the R seat Free Choice Package, you have the option to upgrade your seat to the VIP or LG SIGNATURE seats for selected shows.
 - The B seats are not included in the package.
- ✓ Cancellation and changes for package purchases will not be accepted starting the day of the booked package’s first performance.
 - Date changes can be made through the website.
- ✓ Package tickets sales will be temporarily suspended on February 4th (Tue) from 10am to 11am, due to performance ticket sales preparation.

패키지 PACKAGES

25주년 패키지

LG아트센터 25주년 기념!
패키지 대상 공연 전체를 가장 높은 할인율로
즐기는 패키지

8편 모두 선택 시 - 25% 할인

* 등급별 선착순 25세트

김선욱 &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연극 ‘헤다 가블러’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 VIP석 패키지의 경우, 연극 ‘헤다 가블러’는
R석으로 구성됩니다.

25th Anniversary Package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LG Arts Center, enjoy the entire package of
shows at the highest discount rate!

Enjoy a 25% discount by purchasing all 8 shows

* Limited to the first 25 sets per grade

Sunwook Kim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Matthew Bourne’s ‘Swan Lake’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Nelken’ by Pina Bausch

‘Hammer’ by Alexander Ekman

* For the VIP Package, the ‘Hedda Gabler’ will be assigned to R seats.

패키지 PACKAGES

레전드 패키지

현대 공연예술계의 좌표를 찍은
레전드 공연을 모두 보는 패키지

4편 모두 선택 시 - 20% 할인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Legend Package

Experience all the performances of legendary
artists!

Enjoy a 20% discount by purchasing all 4 shows

Matthew Bourne’s ‘Swan Lake’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Nelken’ by Pina Bausch

‘Hammer’ by Alexander Ekman

%

VIP석 선택 시 710,000원 → 568,000원

R석 선택 시 590,000원 → 472,000원

S석 선택 시 450,000원 → 360,000원

A석 선택 시 300,000원 → 240,000원

K-씨어터 패키지

이야기를 즐기는 당신을 위해!
K-씨어터 신작을 릴레이로 달리는 패키지

3편 모두 선택 시 - 20% 할인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연극 ‘헤다 가블러’

양손프로젝트 신작 ‘유령(가제)’

K-Theatre Package

Dive into a thrilling journey of
new K-Theatre productions!

Enjoy a 20% discount by purchasing all 3 shows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Ghosts(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

R석 선택 시 230,000원 → 184,000원

S석 선택 시 200,000원 → 160,000원

A석 선택 시 180,000원 → 144,000원

자유 패키지

내가 만드는 취향저격 패키지

5편 이상 선택 시 - 20% 할인

3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

Free Choice Package

Create your own package freely,
according to your preferences!

20% discount for
selecting 5 or more shows

15% discount for
selecting 3 or more shows

할인 DISCOUNTS

개별 예매기간 Performance Booking Period

2.4 Tue 11am ~

조기에매 할인 Early Bird Discount

~ 2.28 Fri

15 %

✓ 김선욱 &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Sunwook Kim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 영국 로열 발레 ‘더 퍼스트 갈라’
The Royal Ballet: The First Gala in Seoul

10 %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 3.31 Mon

15 %

✓ 연극 ‘헤다 가블러’
LG Arts Center Production ‘Hedda Gabler’

* 단, 5.21 Wed - 6.8 Sun 회차는 ~4.30 Wed까지

✓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Nelken’ by Pina Bausch

10 %

✓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Hammer’ by Alexander Ekman

청년 할인 Youth Discount

20 % ~ 25 %

2002. 1. 1 이후 출생자 본인 대상, 회당 100매 한정
For individuals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02.
Limited to 100 tickets per each performance.

* 공연별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15 % ~ 20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 내, 공연예술전문가
등록자 본인 대상

* 공연별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회원정보 수정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장애인 & 국가유공자 할인

장애인 1-3급 | 본인 외 1인까지 50 %

장애인 4-6급 및 국가유공자 | 본인만 30 %

* 티켓 수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구조에 따른 안내와 상담을 위해
LG아트센터 서울 티켓박스(1661-0017)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혜택 MEMBERSHIP BENEFITS

우수회원

우수회원이 되면 아트포인트 2배 적립, 주차/음료
쿠폰 제공 등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회 이상 공연 관람 or
100만 원 이상 공연 티켓 구매 시 다음 해 1월
우수회원으로 승급됩니다.

편리한 티켓 변경

PC와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 취소, 좌석 변경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조건(좌석등급 및 할인권종 등)에 한해 변경 가능

모바일 티켓

LG아트센터 서울 모바일 티켓을 이용하면 지류 티켓
발권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LG아트센터 티켓’ 채널 또는 홈페이지
예매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객석 입장 전까지, 홈페이지 예매내역에서 티켓 수령
방법(지류/모바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매 수수료 무료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트포인트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 우수회원 2%가 적립됩니다.

* 기획, 대관공연 구분 없이 티켓을 구매하면 적립되며,
1,0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30% 이상 할인, 패키지 구매 시에는 적립이 되지 않으며,
일부 공연의 경우 적립·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 기준 2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의

특별한 공연 관람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면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 권종: 10만원 권, 50만원 권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번호 등록을 거쳐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장 구매만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
(1661-0017) 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홈페이지 Website

www.lgart.com

한국어



ENG



홈페이지 하단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bscribe to the E-Newsletter at the bottom of the website.

전화 문의 ARS 1661-0017

화-금요일 10:30am - 6pm

(월요일, 주말/공휴일 휴무)

Tuesday to Friday, 10:30am - 6pm

(Closed on Mondays, weekends and holidays)

이메일 문의 E-mail

lgarts@lgart.com

티켓박스 Ticket Box

공연 시작 전 2시간 현장 창구 운영

Open 2 hours before the scheduled performance until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SNS



Instagram



KakaoTalk



YouTube



Blog

오시는 길 Getting Here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LG아트센터 서울
136 Magokjungang-ro Gangseo-gu, Seoul, Korea



안내



구글 지도
Google Map



네이버 지도
NAVER Map



카카오 지도
Kakao Map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3,4번 방향의 지하통로에서 로비로 바로 연결)

5호선 마곡역

(3번 출구에서 700M, 도보 약 10분 소요)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간 주차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Rush Hour Concert

4.4 Fri 7pm

LG SIGNATURE Hall

R 50,000 S 3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8년 출생자까지)

소요시간 | 1시간 15분 (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born in 2018 or earlier)

Duration | 1h 15min with no interval

* 공연 상세 정보 및 티켓 오픈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퇴근길, 음악으로 쉬어 가는 시간

흥미로운 주제들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3년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퇴근길 콘서트'가
2025년을 열어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누구나 부담 없
이 편하게, 누가 들어도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클래식 음악
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클래식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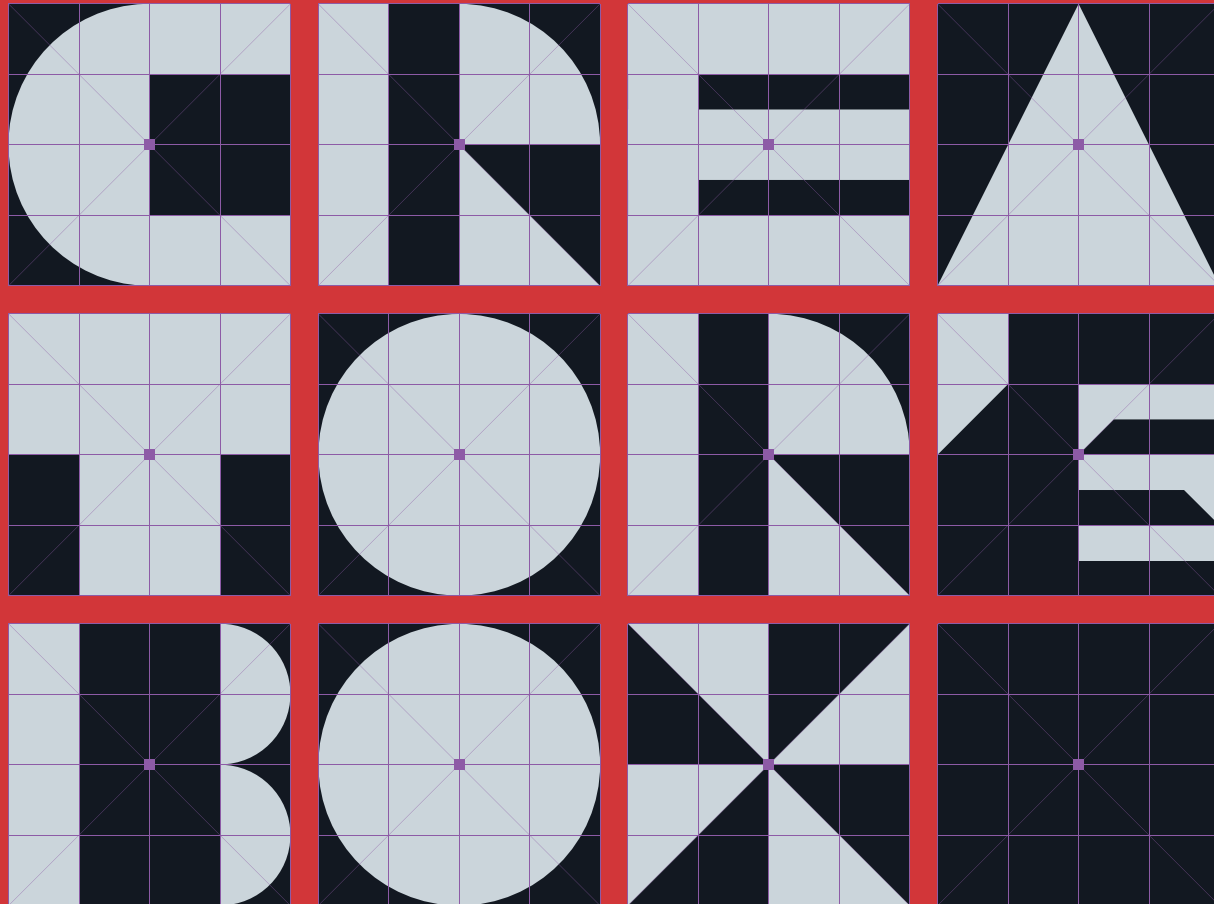
바쁜 일상 속 퇴근길. 섬세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잠시 쉼표
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Rush Hour Concert
returns to LG SIGNATURE Hall to open the spring of
2025. Following three consecutive years of sold-out
performances,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offers a welcoming space for everyone to freely enjoy
classical music with rich programs, special themes,
and beautiful melodies.

Take a moment to pause from the busyness of
everyday life and let the delicate notes of the
orchestra bring happiness to your evening.

CREATOR'S BOX

크리에이터스 박스



Uncover the CREATOR's hidden project at BLACKBOX!

2023년 시작된 'CREATOR'S BOX(크리에이터스 박스)'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공연장의 경계 없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LG아트센터 서울의 블랙박스 공연장, U+ 스테이지는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그 안에서는 흥미로운 시각, 다양한 시도, 새로운 관객 경험이 끊임없이 확장된다. 과연 이 '박스' 안에 또 어떤 프로젝트가 숨어 있을지 기대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해 보자.

Launched in 2023, the 'CREATOR'S BOX' is a collaborative program breaking the boundaries between creators from various fields and the performative space. The U+ Stage—LG Arts Center SEOUL's black box theatre—serves as a platform connecting the creators and audiences, pushing creative boundaries through fascinating perspectives, diverse artistic experiments, and the expansion of fresh audience experiences. Anticipating the surprising projects hidden within this 'box,' stay tuned for the bold endeavors of upcoming 'creators.'

2023

이진엽 연출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Beyond Diverse Dimensions

2023.4.15 - 23

CREATOR. 코끼리들이 웃는다 (작 배해률, 연출 이진엽)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관객과 배우가 상호 소통하며

함께 극을 만들어가는 이머시브형 송쓰루(sung-through)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and more’

Romeo and Juliet and more

2023.9.20 - 23

CREATOR. 연극연습 프로젝트 (연출·안무 모어(毛魚) 모지민, 배효섭)

발레를 전공한 드랙 아티스트 '모어(毛魚)'가 그려낸

아름답고, 낯선 줄리엣의 이야기



2024

‘P와 함께 춤을’

Dancing with P

2024.9.28 - 10.6

CREATOR. 크리에이티브 VaQi (연출 이경성)

피나 바우쉬의 예술 세계를 학습한 AI 마스터 'P'와 함께

그녀의 창작 방식,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연극



CREATOR'S BOX 공개 모집 및 상시 모집(~2027년)

다채로운 공연 경험과 독창적인 시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창작자와 관객 간의 대화를 넓혀 나갈 CREATOR'S BOX 참여 작품을 찾습니다.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신작 또는 기존에 발표된 작업 중 예술적 확장성, 지속 가능성을 가진 작품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공연 및 인접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기획자, 예술가/단체의 프로젝트
- (활동 장르 및 역할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무대 및 연습 공간
- 극장 보유 무대 기술 장비 지원
- LG아트센터 서울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 티켓박스 및 하우스 운영 인력
- 프로젝트 관련 기획/홍보마케팅/기술 분야 자문

• 공연기간

- 2025년: 9.28(일)-10.5(일) 최대 7일
- 2026~2027년: 일시 및 기간 협의 예정

• 접수기간

- 2025년 공연: ~3.31(월)까지
- 2026~2027년 공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onlgarts@lgart.com



모집 공고 세부내용 확인하기

LG SIGNATURE Hall

The LG SIGNATURE Hall is a state-of-the-arts, 1,335-seat multipurpose theatre designed to accommodate nearly all genres of performances, from classical music and opera to plays, musicals, ballet, and concerts. Equipped with a versatile stage, and genre-adjustable sound system, it ensures the perfect setting for each and all performances. The hall features hidden banner curtains (VABS) to adjust reverberations, along with a noise-isolating Box In Box structure, creating an exceptional environment for every experience.

LG SIGNATURE 홀

LG SIGNATURE 홀은 1,335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연극, 발레,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박스 인 박스(Box in Box)’ 구조 공법과 벽 안에 숨겨진 배너 커튼으로 잔향을 조절하는 ‘VABS’ 방식을 통해 공연 장르별로 최적화된 음향 환경을 구현합니다. 또한 어떠한 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무대 규모와 시스템을 통해 관객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선사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Sponsored by **LG SIGNATURE**



©배지훈

U⁺ Stage

U⁺ 스테이지



©배지훈

U⁺ 스테이지는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검정 상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 공연장은 아티스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객석을 이동시켜 무대 타입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시팅 웨건’과 60개의 스피커로 완성되는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천장에 설치된 와이어 그물 ‘텐션 와이어 그리드’를 통해 아티스트의 의도를 가장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입니다.

* U⁺ 스테이지는 새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객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The U⁺ Stage is a versatile black box theatre that can be freely transformed to meet the artist's vision. It features the Seating Wagon, which allows flexible stage, and audience arrangements. Moreover, the Immersive Sound System, powered by 60 strategically placed speakers, along with the ceiling's Tensioned Wire Grid for lighting and technical setups,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he artist's creativity meets endless possibilities.

Sponsored by **LG U⁺**

둘러만 보아도 ‘작품’이 되는 공간 LG아트센터 서울 건축 이야기

아직 공연장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그저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품’은 시작된 것 같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LG아트센터 서울은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Although I haven't entered the performance hall yet, just walking around
this place makes it feel like the 'artwork' has already begun.
LG Arts Center SEOUL,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rchitect Tadao Ando,
is a space where you can fully experience his architectural philosophy.

2022년 2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여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총 6년 4개월에 걸쳐 완성한 LG아트센터 서울은 두 개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리허설룸 등을 보유한 공연, 교육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안도 다다오는 1995년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 대가로, 투명한 소재인 유리나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존재감을 표현한다. 대표작으로는 물의 교회, 빛의 교회,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등이 꼽히며, 국내에서도 뮤지엄 산, 본태박물관, 글라스 하우스 등을 통해 그의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상하이 폴리 씨어터, 서울 JCC크리에이티브센터 등의 공연장도 설계했다. 그중 LG아트센터 서울은 건축에 자연이 녹아드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도 다다오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 직접 방문하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도 높은 건축물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In October 2022, LG Arts Center began a new chapter in its journey, reopening in Gangseo-gu under the new name ‘LG Arts Center SEOUL.’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rchitect Tadao Ando, LG Arts Center SEOUL serves as a vibrant cultural space featuring two performance halls, studios, and rehearsal spaces, while also standing as a “work of art” on its own. Ando is known for his signature use of glass and exposed concrete, creating simple yet powerful designs, with notable works such as the Church of Water, and the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LG Arts Center Seoul, fully reflecting Ando's philosophy of blending nature with architecture, was honored with the Grand Prize at the 41st Seoul Architecture Awards. Upon his visit in 2023, Tadao Ando described it as “a space with a depth and richness that surpasses what I had imagined.”

LG아트센터 서울의 세 가지 건축 컨셉

튜브(TUBE)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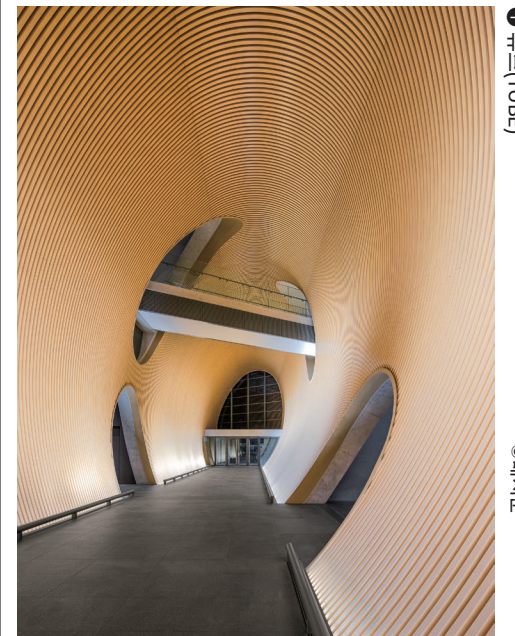
게이트 아크(GATE ARC)

The design is based on three concept
TUBE, STEP ATRIUM, and GATE ARC

① 튜브(TUBE)는 LG아트센터 서울의 지상층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원형 통로이다. 높이 14m, 길이 80m에 달하는 튜브를 사이에 두고, 동편에는 공연장과 교육 시설이, 서편에는 LG디스커버리랩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남측에는 LG사이언스파크가, 북측에는 서울식물원이 자리 잡으며, 단순히 동 통로가 아닌 인간, 예술, 과학, 자연을 잇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② 안도 다다오의 시그니처 ‘노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메인 로비에서 게이트 아크(GATE ARC)를 만날 수 있다. 커다란 곡선 형태인 이 벽은 2개의 공연장을 감싸는 70m의 길이, 객석 1층부터 3층까지의 높이 20m로 세워졌다. 특히 약 13도 기울어진 모습은 이곳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환영의 인사를 하는 듯하다.

③ 길이 100m에 달하는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은 지하부터 지상까지의 공간을 종으로 연결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방향을 전환하면서 다양한 장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흠어지는 공연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사용,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각 층의 공간미를 살려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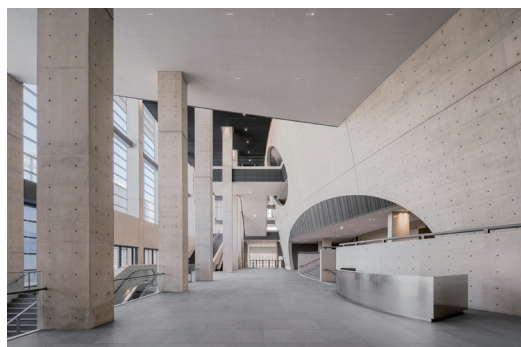


① 튜브(TUBE)

©배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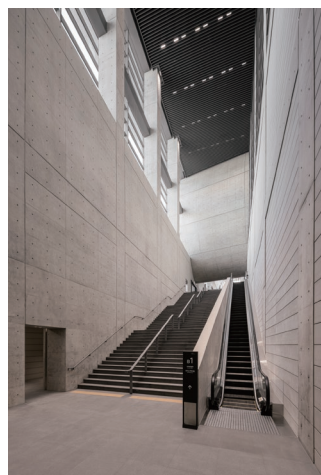
“여기밖에 없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이 개성을 가지고 상호 교차하면 여러 요소가 충돌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

I envisioned a performance space like no other—
a place where each space holds its own uniqueness, blending and intersecting
with others to spark a fresh energy.
I hope this space becomes an inspiration to everyone who steps inside.
Architect Tadao 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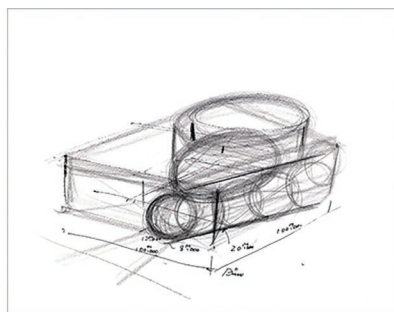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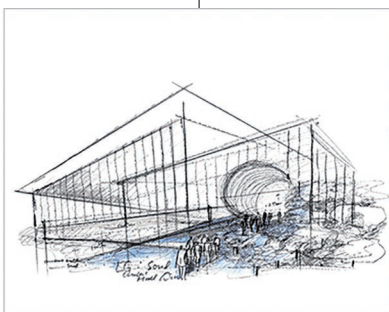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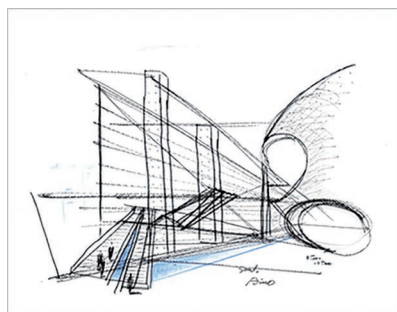
② 게이트 아크(GATE ARC)

안도 다다오는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언제나 형태 이상의 정신을 강조한다. LG아트센터 서울을 설계할 때 역시 각각의 공간이 이동 동선 이상의 가치를 지니길 원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감동을 공유하는 곳, 공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교차를 이루면서 신선한 자극을 주는 곳, 그렇게 방문한 이들의 마음에 평생 기억될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축가의 마음까지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길 바란다.



③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

Tadao Ando always emphasizes the spirit beyond form in explaining his architecture, and this was what he also aimed when designing LG Arts Center SEOUL. Ando envisioned each place to hold value beyond its function—a place where people gather to talk and share emotions, where each uniqueness blends and intersects with one another to spark a fresh energy, inspiring all who visit.
We invite everyone visiting LG Arts Center SEOUL to take a moment and connect with the architect’s vision.



안도 다다오 스케치 ©Ando Tadao

건축 오디오 투어 Architecture Audio Tour

LG아트센터 서울을 건축 오디오 투어로 만나보세요.
누구나 셀프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부터 건축가의 세 가지 디자인 컨셉 그리고 공연장과 전시 공간 및 루프탑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마주하게 되는 8개의 스팟에서 박해수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의 매력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Explore the architectural world of Tadao Ando and listen to interesting anecdotes about designing the venue with your personal audio guide available for everyone visiting LG Arts Center SEOUL. Take a long stroll around the building and find all eight spots where you can listen to stories about the architect’s three design concepts, the theatres, exhibitions space and rooftop.

주최·기획 | LG아트센터
주관 | 정림건축문화재단
글 | 건축가 배윤경
내레이션 | 배우 박해수

오디오 투어 한국어



Audio Tour in English



©배지훈



25th ANNIVERSARY

LG ARTS CENTER



카페 & 레스토랑

Food & Beverage



3F

로마옥

이탈리안 퀴진에 한식의 재료를 곁들여,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양식 메뉴를 선보이는 와인 비스트로
0507-1334-2396,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모담다이닝

사계절 변화하는 서울식물원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한식 다이닝
070-4647-1075, 캐치테이블

2F

라코펠라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인 펠트 커피와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커피 품질을 제공하는 카페
0507-1379-1562

B1F

애즈라이크

제철 채소로 다채로운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올데이 브런치 카페
070-7576-2898, 캐치테이블

오복수산

카이센동과 모듬 사시미 등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해 요리하는 일식 다이닝
02-6953-9945,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테이스티버거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되었던 에그마니 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제버거 맛집
0507-1341-4375

차알

미국에서 즐길 수 있는 중식 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으로 재해석한 '퓨전 중식 요리' 레스토랑
0507-1362-2157,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 예약 및 문의는 해당 업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